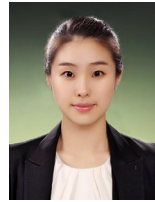


[로스쿨 합격기]

## 도전하라! 전략적으로!

### 최 은 정

- 상명대학교부속여자고등학교 졸업
-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생



### I. 들어가며

매서운 추위가 끝나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이 끝났지만 열람실에 앉아 봄의 변덕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법학공부는 감사, 그 자체입니다. 1년 전, 오늘을 생각하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려 고민하고 계시거나 준비하시는 독자 분들에게 과연 어떤 내용을 기록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제가 궁금했던 것,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받은 질문들을 위주로 기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제 주변의 일부 사람들을 표본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II. 1단계 필요한 요건

#### 1. 영 어

토익, 토플, 텡스 등의 영어 시험 성적을 요구합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토익

을 인정하지 않으며 각 학교마다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의 하한선은 700점이고 상한선이 있는 학교는 일정점수(토익 900 등)가 되면 영어분야를 만점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영어를 P/F로 평가하여 자격 정도로만 취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에도 영어 점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제 주변의 수험자 대부분은 토익기준 900점 이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학원에서 상담을 했을 시, 900점은 무조건 넘어야한다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tip>> 영어는 LEET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미리 완성(?)해 놓는 것이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영어가 준비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답니다. 물론 7월 혹은 8월에 LEET시험을 보고 '난 8월에(9월은 유동적임) 준비하겠어!' 라고 계획할 수 있으나 리트 가채점 후 면접 준비, 기타 스펙 준비 등으로 할 것이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LEET보기 전까지 900점이 넘지 못했습니다. 9월 토익시험과 자기소개서 등을 함께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 초조함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시험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독자 분들께서는 영어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독자 분들께서는 6월 시험까지만 토익에 투자하시고 남은 2달은 LEET에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를 LEET 시험보기 전까지 잡지 못하였지만,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6월까지 5:5 (LEET:영어) 비율로 학습하시며 원하는 점수를 얻으셨습니다. 솔직히 언급하자면 저는 영어는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영어가 좋아서, native라서 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단기간에 최대 효율을 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2. 학부학점

학부학점 역시 다다익선입니다. 각 학교마다 반영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구간별 동일 점수를 주는 곳도 있고 비례하여 점수화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제 주변의 수험자들을 예로 들자면 91/100 (4.0/4.5) 이 평균이었습니다.

tip>> 간혹, 졸업을 하지 않고 학교를 계속 다니며 학점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것이 나올까 고민하시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더 수강을 한 후, 학점이 100점 환산시 0.1점만 오른다면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법전원은 정성평가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3. LEET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35문항), 추리논증(35문항), 논술(2문항). 이렇게 세 분야로 시험을 봅니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은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점수가 환산됩니다. 따라서 35문항 중 맞은 개수에 집착하는 것 보다 상대적인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유의미합니다.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5개 중 35개를 모두 맞추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평균이 (상위 50%) 각 영역당 20개~22개입니다.

tip>> 저도 엄청 높은 점수가 아니기에 팁을 쓰기 좀 창피하지만 책 많이 읽고 기출문제 많이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누구나가 다 말하는 것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부분에서 남들과 조금 다르게 한 것은 스테디를 정말 열심히 하였고 따라서 스테디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럿이 모이면 정말 다양한 풀이 방법과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5명의 스테디 원이 모여 각자 범위를 정하여 공부하여 옵니다. 그렇게 학습한 내용을 스테디 원의 질문에 따라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5,6월 달에 논술을 제외한 학원 강의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원에서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보다 주어지는 문제와 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대적으로 가늠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간혹 학원 시험의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시는 분들도 보았지만 학원의 시험은 진짜 시험이 아님을 염두 해 두고 꾸준히 공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를 하다보면 논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 옵니다. 여기에 대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경험 한 것을 종합해 볼 때, 논술에서 변별력은 그리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들 배운 것이 비슷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는 매우 상위 클래스를 구성합니다.

어느 학원 강사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상 깊었던 말은 '논술의 답안이 획일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점은, 여러 학원에서 획일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기.술.을 가르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획일화 현상이 나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점자의 입장에서 보면 채점의 수월도는 높아지고 그로 하여금 논점이 명확히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학원이나 교재에서 가르쳐 주는 방법론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방법론은 답이 아닌 단지 답안을 쓰는 기술입니다. 저는 법학과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평소 글을 읽으면 목차를 잡는 것과 쟁점을 잡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과 졸업자의 경우 목차보다는 요약글을, 쟁점보다는 이론적 설명을 위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답안은 국문학, 법학 등의 교수가 주로 채점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선, 목차와 논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이 기술을 익히셔야 합니다.

이런 방법론적인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학원이나 논술교재를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았는데 처음 기본반 2달은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철학책이나 정치외교학 책을 읽고 깊이 있게 공부하며 심화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8월 시험을 전제로 보면 4개월 남짓 각1권씩을 집중 있게 읽으시길 권장합니다. 어느 책을 선택하시던 논리 구조적 측면과 전개 및 근거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정성평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반영된다면 그 비율역시 각양각색입니다. 수험자들이 말할길 법전원 입시는 카오스라고 하는 점도 이 항목때문이 아닌가 짐어봅니다. 정성평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양한 나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 공모전, 토익 스피킹, 제 2 외국어 등 위 영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모두 기록하는 것입니다. 각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입시설명회를 다녀왔지만 '그냥 다 있으면 좋아~'라고만 가이드 해 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tip>>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 봉사활동과 법률 봉사활동 등 봉사활동을 4년동안 450시간 이상 꾸준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주는 상장 1개와 봉사관련 외부상장 2개, 국경감사 활동 및 그림자 배심원 활동 등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인들을 보면 변리사나 회계사 등 정말 좋은 자격증을 지닌 분들도 계시고 전무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그런 전문 자격증은 없었고 그냥 태권도 유단자 정도만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인데 점수화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자랑이 될만한 것들은 모두 기록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 Ⅲ. 2단계 필요한 구성요건

7월 말일, LEET 시험을 본 후, 가채점을 하고나면 여러 학원에서의 가채점 결과가 나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입시 카페(ex. 서로연) 등을 통해 나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명심해야하는 것은 자신의 '쫄대'입니다. 로스쿨 입시는 객관적인 지표 외에도 정성이란 요소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와 조언을 참고하되 이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 1. 원서접수와 자기소개서

LEET 성적표가 8월에 나면 원서접수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토익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토익 준비로 정신이 없었지만 저와 저의 스터디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면 마음에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또 여유를 찾으면서 자기소개서에 담을 내용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아직 점수와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항목들을 참조하여 모든 학교의 공통적인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8월 LEET성적표 발표가 있고나면 이제 원하는 학교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원서를 접수할 때 컴퓨터에 기입하는 학교,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학교,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시 등 각 학교마다 제출 시기가 다르다는 것도 염두 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의 항목도 각 학교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하고 그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초함과 불안함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원서 접수 전까지 자신의 생각이 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고 나면, 면접 준비에 들어갑니다. 저와 제 지인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tip >> 저는 4기 입시도 준비 했었는데 가, 나 군 모두 면접까지 보았지만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보니 자소서외의 영향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4기 입시 때 쓴 자기소개서를 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내용만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올 해, 저는 제 자기소개서에 진실을 담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썼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만 할 수 있다고 어필하였습니다. 지인들을 보면 자신의 이야기가 진실하게 담긴 자기소개서를 쓴 사람에게 대체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 2. 면접 준비

원서를 접수하고 나면 이제 서류발표를 기다릴 때 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초조해 하거나 면접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빨리 마음을 다 잡고 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면접학원을 가는 지인도 있었으나, 저는 마음이 맞는 지인들과 스터디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 스터디원끼리 상처 받는 것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독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면접장에 가서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아도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ip>> 면접방식도 학교마다 상이합니다. 학원이나 스터디 하는 조를 보면 대부분 시사문제와 기출문제를 봅니다. 물론 저 역시 시사문제를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기출문제이며 그 성격을 눈여겨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A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요약	B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요약
<p>제시문 (가) - 만장일치에 의한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수결이 나왔다.</p> <p>제시문 (나) - 가중다수결은 부정의가 유지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p> <p>제시문 (다) - 아동노동이 자행되는 사회에서 아동노동을 막기 위해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찬성측이 66% 지지를 받아서 이를 막지 못했다.</p> <p>Q) 제시문 (가), (나), (다)의 가중다수의 비판 요지를 정리하고 가중다수의 긍정적 예를 들어라.</p>	<p>제시문 (가)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제시문 제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생략)</p> <p>Q) 제시문 (가)에 대한 생각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p>

두 학교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제시문의 길이는 양 학교 비슷함.)

A학교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생각을 이끌어야 합니다. 즉, 제시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반면 B학교는 제시문을 중시하되 시사문제에 대한 면접자의 생각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의 기출문제를 파악, 학교에 맞춰 맞춤형면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터디는 각 학교의 예상문제를 매 시간 만들어 (제시문 포함) 맞춤형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인성면접의 경우는 자주 등장하는 질문은 썰르면 나올 정도로 준비하고, 그 밖에 예상문제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 3. 면접 시

면접은 나의 약점을 덮고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번 입시를 준비하면서 객관적으로 우월한 성적을 갖춘 지인이 떨어지는 경우도 보았고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성적을 갖춘 지인이 합격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tip>> 그 둘의 차이는 면접 태도라 생각합니다. 스터디를 하다보면 후자의 지인은 항상 자신의 말에 확신이 차 있고,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전자의 지인은 면접관 앞에 앉으면 주눅이 들어 있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면접 마지막까지 긴장해야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저 역시 작년에 면접관들 앞에서 웃기만 했지 제 주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군에서는 당당히 의사표명을 했으나 나군에서는 웬지 어수선하게 대답하여 제 주장을 모두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 가 짚어봅니다.

### V. 글을 마치면서

마음만 먹으면 실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정보들이 진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정보가 있었고 저는 정보 속의 미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재 하나 선정하는 데에도 많은 정보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들은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며 어느 한 대학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이니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객관적이 지표가 어느 대학원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차에 정성평가의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와 같은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권 법전원에는 나이도 스펙이라는 말이 있지만 적어도 저희 학교에서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항상 도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독자 분들께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넘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